

3월

글 최원현(수필가)

3월은 보통사람보다 키가 커서 휘적휘적 시원스레 걸어가는 젊음이 같다. 인상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마냥 기분도 좋게 한다. 바람이 보드랍다. 보드랍다는 것은 부드러움과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스함은 평화요 사랑이다. 3월 바람엔 색깔이 있다. 아주 연한 초록인 듯한데 연보라색으로도 보이고 은은한 노랑도 감돈다. 그런가 하면 3월의 냄새는 꽃내가 분명한 비릿함에다 땅을 밀고 올라오는 새싹들 때문인지 흙내까지 솔솔 풍겨댄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흔들어 놓는다. 봄 마음이다.

3월은 만남의 계절이다. 꼭꼭 걸어 잠갔던 문들을 열어 안 깊이까지 햇살을 받아들이고, 나무와 나무, 시내와 시내, 이 산과 저 산에도 친절하게 그간의 안부들을 묻는다. 겨울나기를 잘 해냈다는 장함이 뿌듯함으로 나타나 보인다.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나무의 뿌리에 물을 적셔주고 있던 작은 물줄이 뿌리를 간지럽힌다. 어서 빨리 싹을 틔우라는 것이다. 그 바람에 어린 나무들보다도 일찍 싹을 틔운 느티나무에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큰 나무에 돌아난 작은 싹이 신기한 듯 몇 바퀴나 돌고 간다.

봄이다. 내게 금년 봄은 더욱 뜻 깊은 계절이 되었다. 3월은 내 큰 아이가 태어난 달이다. 삼십여 년 전 그 땐 살기가 어찌 그리도 어려웠던지 녀석에게 우린 유유초차 먹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 3월에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 며칠 전 남미 파라과이로 선교사역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난 가슴이 콕 막히는 줄 알았다. 분명 예견된 일이었다. 일찍부터 그 쪽에 뜻을 두어 왔음이다. 그러나 정작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떠날 날짜를 들었으니 어찌 충격이지 않으랴. 결혼은 하고 나가야 할 텐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다.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주례를 부탁드리고 떠나기 1주 전으로 날

을 잡았다. 3월 3일, 날짜로도 가히 삼삼한 날이다. 지금 녀석은 새 삶의 싹을 틔워내고 있다. 나만 몰랐을 뿐 제 남편감과 한 통속(?)이 되어 새벽기도까지 함께 다니며 아주 조용하고 차근 차근히 준비를 해왔던 것 같다. 다만 모든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졌고, 저들의 계획에서 순서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저들은 긴 겨울동안 봄을 준비해 왔음이다.

두 젊은 남녀가 낯선 나라에 나가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데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건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만도 않다. 아쉽고 허전해 진다. 사실 둘이 하나를 이루는 저들의 삶 첫해를 '섬기는 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고 보면 3월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달인 것도 같다. 조용한 것 같지만 귀를 기울여 보면 가만있는 게 하나도 없다. 평화로운 것 같으나 그 평화 속에선 치열한 삶의 기가 뻗어나고 있다. 삼라만상이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잿빛 하늘도 어느새 파아랗게 변해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달, 삼월은 다시 살아나는 달이요, 회복의 달이다.

3월의 마음은 있는 것 먼저 나눠주는 것이다. 그 걸음마저 키 큰 젊은이가 휘적휘적 걷는 것처럼 시원스럽다. 두 젊은이도 그런 걸음으로 바쁘게 그들의 일을 하리라. 우리 삶이 다 이렇지 않을까. 다만 우린 그걸 늘상 되풀이 되는 것으로 새롭게 보질 않았을 뿐이다. 생텍쥐페리가 그랬던가.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으면서 바로 그 떡갈나무 그늘에서 쉬려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명은 생명을 싹트게 하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싹을 맺는 것이지만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푸는 삶이면 보람으로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딸아이가 떠나고 나면 완전한 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봄은 그토록 정성스레 소중하게 피워낸 꽃들을 미련 없이 털어내고 다시 열매의 꿈을 가꿔가는 때요 3월은 그래서 보냄의 달도 된다. 딸아이가 가고나면 내게 3월은 또 하나 커다란 공백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엔가 채우고도 남을 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아파하지 않는다. 삶은 그렇게 구멍이 났다 메워지고 또 더 큰 구멍이 나는 되풀이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해 가는 것들이 아닐까.

그것은 열매를 향한 거룩한 낙화다. 그래서 지는 꽃에 슬퍼하지 않고 더 큰 바람으로 다들 3월을 좋아하는 것이리라. 卍